

“인류를 자연으로 돌려야지”

지리
선지식을 찾아서

고 답했고 보월 스님은 “불불(佛佛)이 불상견(不相見)이라”고 답했다. 용성 스님은 스스로 답하기를 “표화(瓢花)가 천리출(柵裏出) 하니 와재마상전(臥在麻上田)이라 [박꽃이 울안에 피니 삼밭위에 드러누웠도다]”고 하셨다는 얘기가 있어.

극락암에서 내가 경봉 스님에게 “저도 한 번 일러 볼까요?” 했더니 스님께서 물으셨어. “안수정등의 일귀를 일러라.” “남산(南山) 북산(北山)이다.” “철저하지 못하다.” “어찌하면 철저히하겠습니까?” “정진 또 정진하라.” “감사합니다.” 그렇게 방을 나오는데 뒤에서 경봉 스님의 목소리가 들렸어. “용성 스님이 안계시는 게 한이로다.”

나는 순간 우뚝해지려는 마음을 고쳐먹고 정진 또 정진하려는 경계를 빼고 새겼지. 그리고 더 이상 떠돌지 않으리란 생각에 고향과도 같은 선암사로 다시 돌아왔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비로암 터에 토굴을 짓고 혼자 정진을 했는데 왜 그렇게 즐겁고 힘이 나던지. 나는 선곡 스님에게 받은 ‘만법귀일 일귀하처’ 화두를 들고 몽매일여가 되도록 정진을 했어. 즐거웠지.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구름이 흘러가는 모양도 다 즐거움 그 자체였지. 그러던 어느 날 산비탈에서 나무를 하고 오는 길에 지게 목발이 밧에 걸려서 지게를 전체로 20여 바퀴를 굴렀어. 순간에 넘어져 마구 굴러 내려가다가 일어섰는데, 아차 싶더라고. 일여가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넘어져 구르는 동안에 그만 내게서 화두가 달아나고 없었던 것이야.

지허 스님은 심각했다. 나름대로 제방을 다내고 보고 듣고 느낀 바 있어 홀로 토굴을 짓고 정진을 했는데, 그래서 몽중일여의 즐거움 나날이 있는데 알고 보니 그동안 남의 웃을 걸치고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나무하는 일도 핑개치고 지독하게 정진했다. 죽음의 판문을 넘어 가지 않으면 살 길이 없었다. 어느 날 방문을 열고 나가다가 기러기 떼가 ‘끼욱 끼욱’ 소리를 내며 날아가는 것을 보는 순간 머리가 맑아지는가 싶더니 천지가 무너졌다. 마당에 내려서서 작대기로 땅에다가 생각나는 대로 적었다.

천심비로화개홍(千深毘盧花開紅)
만리장천안성백(萬里長天雁聲白)
용로중출청량월(窟墟中出淸涼月)
산상상두무영인(森羅相頭無影印)
비로암은 천길 깊었는데 꽃 피어 붉고
끝없는 하늘이 맑디맑은 기러기
소리여.
용광로 속에서 밝은 달뜨
니

삼라만상 머리마다 그림자 없는 도장 찍었고 다.

그해 가을 지허 스님은 산길을 넘어 송광사 삼일암을 찾아 갔다. 삼일암에는 방장 구산 스님이 계셨다. 작대기로 문을 두드리니 시자가 나왔다. 방장 스님 친견을 청했으나 거절당했다. 큰스님을 모시는 시자에게 남루한 옷에 초췌한 얼굴, 작대기 하나 들고 온 객승이 탐탁찮은 거야 당연지사. “시자님, 지금 보이는 내 모습을 그대로 방장 스님에게 일러 주시오.” 결국 방으로 불러들이신 방장 구산 스님이 물으셨다. “어디서 왔고?” “조계산 양지에서 왔습니다.” “선암사인가?” “아닙니다. 양지에서 왔습니다.” “뭐하고 사느냐?” “비로암에 삽니다.” “침경 스님 사시던 곳?” “그렇습니다.” “화두는 있는 나?” “만법귀일 일귀하처입니다.” “낙처(落處)를 아느냐?” “한 번 물어 주십시오.” “무엇이 만법귀일 일귀하처이고?” “동쪽 처녀가 서쪽 오랑캐를 엮고 갑니다.” “아니다. 다시 일러라.” “서쪽오랑캐가 동쪽 처녀 등에 업혀 갑니다.” “더 없는가?” “광상이 한 구절 생겼으나 펼쳐 버렸습니다. 한 번 써 보겠습니다.” 지허 스님은 비

로암 마당에 썼던 글귀를 써 보여 드렸다. 그리고 그간의 살림살이를 말씀드렸다. 구산 스님이 가까이 앉으라 하시더니 손을 잡고 문 밖을 내다보시며 “저기 감이 한창이네” 하셨다. 지허 스님이 바로 받았다. “감이 어떻게 됩니까?” “붉은 감도 떨어지고 선감도 떨어지네.” “선감도 먹고 붉은 감도 먹습니다.”

그날 밤 구산 스님은 지허 스님을 옆에서 자라고 했다. 자정이 가까워져 잠자리에 누운 것인데 한 시간이 지났을 무렵 구산 스님이 ‘어험!’ 하고 기침 소리를 내셨다. 지허 스님도 ‘어험!’ 했다. 침묵. 한 시간 좀 다시 지나고 구산 스님이 ‘어험!’ 하시고 지허 스님도 ‘어험!’ 했다. 한 시간 좀 지나고 구산 스님이 일어 나셨고 지허 스님도 따라 일어났다. “잘 잤느냐?” “삼일암 잠이 이렇게 꿀같이 단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아침 인사를 나눴다. 비로암으로 넘어 온 뒤 구산 스님은 가끔 지허 스님에게 먹을 것과 약을 보내기도 하셨다. 그러나 구산 스님이 입멸에 들었을 때는 문상을 하지 못했다. 선암사 대웅의 오해를 사기 싫어서였다. 조계종과 태고종 분규의 정점에 있는 선암사의 현실이었다. 지허 스님은 그러한 선암사에서 주지를 12년 했다. 중창불사와 가람수호의 세월은 지허 스님에게 또 다른 ‘사관(死關)’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많은 불사 가운데 조사전 건립불사를 중요하게 여긴다. 중국의 탐마 이래 육조를 거쳐 이어 온 선맥이 석유청공을 거쳐 한국의 태고 보우로 이어지고 선암사 침경선사로 흘러 온 선맥을 밝혀 둔 것이다.

이젠 다 놓았어. 공부하러 절에 와서 절일만 하느라 시간 다 가고 인생을 조져부렸지 뭣인가. 나는 그래도 세 가지는 잘 해. 나무 잘하고 빨래 잘하고 그리고 돌담을 잘 쌓지. 태고선원은 반농반선이 원칙이야. 일 하지 않고 공부한다는 것은 말이 안 돼.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변하여 인류가 잘 사는 것 같지만 그 속에서 모두 행복하냐? 이제 신농경사회로 가야해. 변혁을 하지 않으면 발전 못하고 잘 살 수도 없어. 신농경사회란 오염되지 않은 세상을 만드는 일이지. 절이 먼저 숭선해야 해. 절이야말로 자연과 함께 인간의 참성품 깨우치면서 살 길을 인도하기에 가장 적합한 곳이야. 차 농사를 지어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지. 결국 불교가 해야 해. 인류를 자연으로 되돌리는 일을 맡아야. 그리고 보니 내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군. 그만 할까?

금둔사 태고선원 뒤뜰에 설달에 피는 남월매(納月梅)가 열 맺 송이 피어 붉은 향기를 흠뻑하고 있었다.
글·사진=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31) 송산행원 대선사

송산 스님은 한국이 낳은 달마다. “바로 사람의 마음을 가리켜 제 마음을 보고 깨달음을 얻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보스턴에서 나는 두 가지 특이한 현상을 보았다.

하나는 심공사 주지스님이 가사장삼을 입고 400여 명의 제자들 앞에서 심검(神劍)을 휘둘러 방(榜)을 저격한 장면이고, 둘째는 103명 세계 범왕자들이 모인 가운데 대대학교수가 일곱 번째 연어를 하고 있는데, 몇 번째 남자와 결혼해야 좋겠느냐고 질문한 장면이다.

미국에 들어와 10년 이상을 신검으로 세상을 교화하기 힘썼으나 결과를 보지 못하고 있을 때 송산 스님을 만나 일본의 사

이 몇 번째 애인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들 해 그들 부부는 화계사에 와서 전화하였다.

“스승의 나라 덕숭산에 가서 100일 동안 참선한 뒤 여기서 결혼하여 세세생생 보살도를 닦겠다.”



가사의, 불가지(不可知), 불가량(不可量)의 해탈경계가 나타난다. 산은 언제나 푸르고, 땅은 언제나 누르다. 그러므로 스님은 “모르는 것을 알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셨다.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이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산이 산이 아니고 물이 물이 아니 것을 산과 물로 착각한 것은 세속인간이다. 만약 한 생각 뒤집어 진다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모양과 견(見)을 따라 흐르는 물이 계절에 관계없이 언제나 허공처럼 비어있기 때문이다. 스님은 이 참되고 근결같은 마음으로 체(體)·상(相)·용(用)을 마음대로 응용하여 지지고 볶으며, 쪄려 마음대로 식성따라 먹게 하였다. 스님께서 일본, 중국, 소련, 유

“무슨 말을 들을지라도 내 마음은 내가 잘 알고 있다”

무리위를 연상케 하는 대기대용(大機大用)의 검도와 ‘입제 할(囑: 고함)’ ‘묵산 방(樵: 동풍이 집)’의 원리를 듣고 불법에 귀의한 덕숭동자가 천주교 교회당을 사서 십자가 마리아상을 그대로 놓아두고 오직 작은 부처님 한분을 성당에 모시고 불법을 펴 성공한 예를 나는 보았다.

또 수백 평의 정원 방갈로가 그대로 방치되어 주인을 잃고 있을 때 배장으로 사들여 한 달에 700불씩 주어야 간신히 방 한 칸을 얻어 사는 가난한 유학생들에게 그의 반 값인 350불에 부부동반도 좋다고 딱지를 붙이고, 단지 조석예불만 드릴 수 있으면 환영한다고 한 것이, 52개 빈방이 딱 차고 불당에까지 사람들이 몰려와 예불을 올리고 있었다.

필자가 참석한 날은 세계 각국의 법사들이 모여 3일 동안 융맹정진하고 회향하는 날이라 더욱 의의가 깊었는데, 앞서와 같은 질문을 받고 답변하였다.

“뉴욕에 들러 보니 영역 불천이 1백여 권에 달하는데 <인교업보경>을 찾아보면 당신의 애인

소식을 듣고 화계사에 가보니 둘이 다 머리를 깎고 눈썹까지 밀어버렸다.

“언제 스님이 되었습니까?”

“그동안 모든 것을 참회하고자 삭발하였을 뿐입니다.”

그 뒤 두 분은 화계사에서 간단히 예식을 올리고 귀국했는데, 지금은 보스턴대학에서 심리학 교수로 지내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하야간 송산 스님은 이런 분이 다. 돈 한 푼 없이 일본·미국·홍콩·뉴욕에 다니며 포교하다 보니 말도 많고 설도 많았다. 그러나 스님의 의지는 분명했다.

“내가 무슨 말을 듣고 설을 들을지라도 내 마음은 내 마음이 잘 알고 있다.”

스님의 법문은 간단했다. “있다고 할 것이냐, 없다고 할 것이냐. 있다고 해도 30 방망이고 없다고 해도 30 방망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산은 푸르고 땅은 누르다. 약!”

이 세상 모든 철학과 과학과는 논리는 유·무·중(有·無·中) 세 가지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 세계를 뛰어 넘으면 불

립 등 가는 곳마다 주신 편지와 전화통화를 듣고 정리한 것이 <세계불교 순회포교기>이고, <선학강좌> <도화백지(誦誦百則)>과 수시 법어, 범계량(선문답)을 종합 정리한 것이 <전강에 비친 달>이다. 그러나 그것은 송산 스님의 발자취를 보고 기록한 것이고, 아직 그 참 모습은 정리하지 못했다.

여기서 한 가지 빼 놓을 수 없는 사람은 송산 스님의 재가제자인 닥터 최이다. 원래 그 분은 조그마한 배(배)를 경영하면서 도반들이 담은 김치를 팔아 하와이 대원사 불사와 송산 스님의 포교에 일조(-助)가 되었다. 그런데 근기가 뛰어나 무엇이고 한번 보고 들으면 못하는 것이 없었고, 특히 선법문에 대해서는 기지가 있었다. 불사서 흥원원을 만들 때도 그 분이 돈을 내어 설립하였고, 유럽 각국의 제자들을 돕는데도 인로왕보살 역할을 하였다. 특히 풍피두 대통령의 가까이 친척을 교화한 이후에는 유럽의 정치·경제·사회의 명망 있는 클럽들이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30년 전통의 산삼취급전문업체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100% 순수 국내산! 국내산이 아닐경우 1억원 배상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尊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별도 문의 상담 (자연산삼, 장뇌산삼)
- 자연산삼 150년근 1주 / 120년근 2주 / 80-100년 5주. 보유중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중, 지중, 인중,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